

美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 화장실법’ 지침내려

美오바마 행정부 법무부·교육부 통해...성(性)전환자들의 권리보호에 나서



오바마 행정부가 성(性)전환자들의 권리보호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13일 연방정부 자금을 받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性)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 등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에 따라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성(性)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리법(Title IX) 위반이라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환자들이 자신들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성(性)과 달리 나중에 선택한 성(性)에 따라 병원 서비스와 시

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성전환자들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5일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이 출생한 성(性)에 따라 화장실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화장실 법’이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 이는 성전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성 전환자들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 계기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난 3월 23일에 ‘화장실 법’이 제정되자 이 법은 성전환자들을 차별하는 악법이라며 비판이 거셌다. 페이팔 등 일부 기업들을 노스

캐롤라이나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고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권의 옹호에 앞장서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시장 등은 시공무원들의 노스캐롤라이나 방문을 금지하며 항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화장실 법’은 잘못된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텍사스에서는 11일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두고 공청회가 열리는 등 핫이슈로 부각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동성애자 권익보호를 주도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에는 성전환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전환자들을 향

해 “당신이 오늘 얼마나 많이 고립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법무부 및 오바마 행정부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이 크다. 팻 맥크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화장실법’은 법무부가 문제삼은 1964년 시민권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주지사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의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 등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연방정부의 지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에 반하는 ‘대통령의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3면에 계속]



남가주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 주최로 원로목사 초청 잔치가 열렸다.

“원로목사님들은 우리의 은사”

남가주한인목사회가 80여 명의 원로목사 부부를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나누었다. 16일 LA 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열린 “원로목사 초청 잔치”에서 엄규서 회장은 “여러분은 우

리에게 실천목회를 가르쳐 주신 은사이시다. 모든 것을 감사드릴 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남가주교협의 강신권 신임회장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란 주제로 설교했고 김재을 수석

부회장도 원로목사들 앞에서 인사했다. 그리고 엄규서 회장과 김종용 수석부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된 선물을 추첨해 전달했고 남가주교협도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준형 기자

“사랑의 달 사랑의 점심”

방주교회...5년째 매달 1회 이웃사랑 실천해

늘 외롭고 허전한 어르신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대접하는 따뜻한 점심은 단순한 한 끼 그 이상을 의미한다. 올해로 5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점심을 대접해 온 방주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더욱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12일 중앙루터교회에서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맛있는 점심과 선물을 나누었다. 중앙루터교회를 담임하는 홍영환 목사가 설교했고 한국 무용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으며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방주교회의 박영규 담임목사

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방주교회의 선한 사역이 알려지면서 LA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 경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방주교회는 LA 시의 지원금도 미련 없이 포기했다. 이번 사랑의 점심 행사는 한인 의류업체 네이키드 지브라와 카드결제업체 CDS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방주교회는 이 행사에 동참할 단체와 기업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310-836-8342 [관련사진 4면에 계속] 이안규 기자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렌스, 알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383-5583
Tel: (949)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제 4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신권 목사 취임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저희들을 위해 큰 사랑과 애정으로 협력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 단체는 교회와 교역자들이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기고자 제 4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려합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역대 회장단

대	연도	회장	대	연도	회장	대	연도	회장
1대	1971년	최영용목사	18대	1988년	김달생목사	33대	2003년	정해진목사
2대	1972년	손순열목사	19대	1989년	안재관목사			홍영환목사
3대	1973년	안수훈목사	20대	1990년	김진영목사	34대	2004년	최희량목사
4대	1974년	안수훈목사	21대	1991년	황성수목사	35대	2005년	이정남목사
5대	1975년	임동선목사	22대	1992년	심형구목사	36대	2006년	한기형목사
6대	1976년	이금식목사	23대	1993년	정구훈목사	37대	2007년	박종대목사
7대	1977년	오은철목사	24대	1994년	서정익목사	38대	2008년	신승훈목사
8대	1978년	차국찬목사	25대	1995년	조석환목사	39대	2009년	한중수목사
9대	1979년	장시화목사	26대	1996년	이수민목사	40대	2010년	지용덕목사
10대	1980년	박영창목사	27대	1997년	김사무엘목사	41대	2011년	민중기목사
11대	1981년	한성욱목사	28대	1998년	김도석목사	42대	2012년	변영익목사
		김계용목사	29대	1999년	류당열목사	43대	2013년	진유철목사
12대	1982년	윤철주목사	30대	2000년	김경서목사	44대	2014년	박효우목사
13대	1983년	김의환목사	31대	2001년	이정근목사	45대	2015년	최 혁목사
14대	1984년	조천일목사			한기형목사			
15대	1985년	조문경목사			김건태목사			
16대	1986년	오은철목사			이성열목사			
17대	1987년	이기홍목사	32대	2002년	정지한목사			

■일시 : 2016년 5월 2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
■주소 :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405 Fwy + Redondo Beach Blvd.)
■문의 : T(562)397-2121, (562)761-5242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 Churches3000@gmail.com



제40회 WKPC 총회가 목사 총대 130명, 장로 총대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LA에 있는 나성열린문교회에서 개최됐다.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WKPC 제40회 총회 열려... 신임 총회장 이규보 목사인준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 제40회 총회가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현성 목사)에서 17일~19일까지 진행됐다.

예배와 성찬식으로 개회한 총회 첫날에는 이규보 목사(서가주노회)가 총회장, 조의호 목사(뉴욕서노회)가 목사 부총회장, 유성환 장로(가주노회)가 장로 부총회장으로 공천받아 그 자리에서 총대들의 인준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이규보 목사 신임 총회장

합동 총회의 박무용 총회장, 김창수 총무, 서현수 부서기, 김정설 부회록서기, GMS총회세계선교회의 김재호 이사장, 김찬근 부이사장, 조기산 부서기 등이 참석해 총대들에게 인사했다.

특히 박무용 총회장은 친선사절단 대표로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회무 처리에 들어갔으며 특히 저녁 7시 세계 선교의 밤 행사를 통해 교단의 세계 선교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 행사에서는 GMS의 김재호 이사장이 설교를 전했다.

마지막날에는 새벽예배와 곧장 이어지는 폐회예배로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마쳤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교협 신임회장 강신권 목사(중앙)가 기자회견 중 소신을 밝히고 있다.

“남가주교협 정상화가 최우선”

강신권 신임회장... 남가주교협 정상화 위해 최선 다 할 것

강신권 신임회장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세계한인기독교연론협회의 초청으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강 회장은 현 교협의 상황을 “과도기”라 표현하며 “취임식을 전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공신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협이 특정 성향의 개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임원진을 교회와 교단을 고려해 재편하고 이를 위해 현 정관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관 개정에는 객관성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1.5세와 2세들도 교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문 정관도 만들 예정이다.

기자회견 내내 강 회장은 연합과 소통을 강조했다. 남가주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협, 목사회와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교단 및 선교단체와도 소통할 창구를 열겠다. 무엇보다 사랑의 쌀 문제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LA 총영사관과 협력 관계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이민 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교협의 전통을 이어가며 교계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은 교회를 섬기고 남가주 교회들에 소망을 주는 교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발 이단들의 발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빈들교회가 15일(주일) 창립감사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다. 원내는 김용조 담임목사.

“행복한 신앙의 길 가는 영성순례자 되리”

빈들교회 창립감사예배... 광야같은 이민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지난해 12월 12일 창립준비모임을 시작으로 개척된 빈들교회(담임 김용조 목사)가 15일(주일) 오후 이 교회 본당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기헌 목사 집례아래 찬양과 기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강진수 목사기도, 데이빗 김 목사 특송, 집례자의 성경봉독, 김용조 목사 설교, 방관수 목사 봉헌기도, 남극재 장로 권면, 유용한 및 김민지 목사의 축사 등의 순서로 드러졌다.

마지막으로 강성도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창립감사예배는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날 김용조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임재”(호세아1:1~9) 주제의 설교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 사회가 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이슬 같은 나의 존재를 고백하며 성전인 나와 교회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 둘째,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극에 달았던 호세아 선지자 시절보다 더 타락한 우리의 현실을 회개하며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명에 따라 거룩한 분노를 품고 말없이 음란자와의 결혼을 감행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 민

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구원방법을 보는 영적 눈을 떠야 한다”며 “호세아 선지자 시절보다도 훨씬 더 영적 타락에 빠진 이 세대 구원을 위해 빈들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조 목사는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루이스빌 서던 배티스트 세미나에서 M.Div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D.Min를 과정을 했다.

▲주소: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문의: 818-518-0033 이영인 기자



미주대한신학대학교가 제21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미주대한신학대 학위수여식 및 총장 이취임식”

미주대한신학대학교가 제21회 졸업 및 학위수여식과 제4대 총장 박효우 목사 취임식을 거행했다.

15일 오후 열린 졸업 및 학위수여식에서는 신학사(B.Th.) 2명, 신학석사(Th.M.) 2명, 목회학석사(M.Div.) 8명, 목회학박사(D.Min.) 10명이 졸업하고 박성철 목사가 명예신학박

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신임총장 취임식이 거행됐다.

3대 총장을 역임했던 권오달 박사가 이임사를 전하고 박효우 목사가 4대 총장에 취임했다. 류당열 박사(한국문화회관 부회장)가 취임축하패를 전달하고 이의완 박사(증경총회장)가 축도했다.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주강사 **이영환** 목사
대전한밭제일교회



강사 **지용수** 목사
창원양곡교회



강사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대표회장 **지용덕** 목사
미주 한기부

이민교회를 위한 장자권 기도목회 세미나

다 음

- 일 시 : 5월 25일 (수요일, 오전) - 5월 27일 (금요일, 오전)
- 오전 10:00- 12:30 / 오후 1:30- 5:30 / 저녁 7:30
- 장 소 : **미주양곡교회** (지용덕목사사무/웨스턴과 5가 가주마켓건너편)
-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213) 500-8583
- 특 전 : 수료증 강사저서 및 소정의 도서증정, 식사제공
- 대 상 :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평신도지도자
- 회 비 : \$30.00 (교재대, 식대, 기타, 100불중 장학금 70불)
- 신청문의 : 사무총장 심진구목사 (213-590-9191, pastordrsim@gmail.com)
- 총무: 서중운목사 (818-515-5731, Sjwo675@hanmail.net)
- 서기: 진석호목사 (213-434-9191, sukhoj@gmail.com)

주최: 미주 한기부, 생명의 양식선교연구원, 장자권사역원, 미주양곡교회
후원: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연목회,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신문, 크리스천윌리, 크리스천헤럴드, CHTV

이민목회를 위한 “장자권 기도목회 세미나”

미주한기부 주최...5월 25일(수)~27일(금) 미주양곡교회에서



지용덕 목사가 '장자권 기도목회 세미나' 개최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민목회를 위한 "장자권 기도목회 세미나"가 열린다. 미주한국기독교부흥협회 회장 지용덕 목사는 이 세미나 개최에 대해 "이민목회는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영적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지성목회가 아닌 기도목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복음화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함이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강사는 전세계에 걸쳐 "장자권 세미나"로 유명한 이영환 목사(장자권사역원 대표, 대전한밭제일교회 담임)가 인도한다. 이 세미나는 목회현장이 "오직 말씀목회, 기도목회, 행복목회를 간구하고 갈망하던,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으로 그쳐 시골 30여 명 목회가 꿈이었던 이영환 목사가 35년의 목회사역에 걸쳐 일구어낸 "말씀훈련 세미나"로 진행된다. 한편 이 세미나는 미주한국기독교부흥협회, 생명의 양식선교연구원(대표 지용수 목사), 장자권사역원(대표 이영환 목사),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가 공동 주최하고 남가주 교계 및 언론단체, 언론목회 등이 후원한다.

▲신청기간: 5월 23일(월)까지
 ▲등록비: 30불
 ▲문의: 818-515-5731
 ▲대상: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평신도 지도자 등
 ▲장소: 미주양곡교회
 이영인 기자



강사 이영환 목사, 장자권사역원 대표



이 학교 고등학교 올해 졸업생 17명 전원은 미 명문대에 진학했다.

“기독교사립 새언약학교 제13회 졸업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모범 미션스쿨로 성장해

올해로 17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기독교사립학교 새언약초·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 이하 NCA)가 12일 교내 강당에서 졸업식을 열었다. 이날 고등학생 17명, 중학생 18명, 초등학생 10명, 킨더가든 12명이 각각 졸업했다. 제이슨 송 교장은 "지난 2~3년간 자신들의 특별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아트나 비즈니스 등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 대학을 지원해 모든 학생들이 전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다"고 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예일대학을 비롯해, USC, UCLA, UCSD, NYU, 코넬대, 카네기멜론대 등에 합격했다. 이날 진행된 졸업식은 제이슨 송 교장의 사회로 사무엘 송 교목이 기도하고 4~12학년으로 구성된 핸드벨 콰이어가 특별찬양했다.

킨더부터 3학년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특별 위십이 있었고 학부모 봉사단체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Chuck Ryor 목사가 설교한 후 에이든 한 군이 감사하고 제이슨 송 교장이 졸업장을 수여했다. 한편 NCA는 전 세계 선교사 자녀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주소는 3119 W. 6th St. LA, CA 90020이며 웹사이트는 www.e-nca.org, 문의는 213-487-5437로 하면 된다. 이민규 기자



이동원 목사가 엘바인침례교회(담임 박경호 목사)에서 '뷰티풀 에이징'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뷰티풀 에이징”

9일~11일까지 엘바인침례교회에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초청 뷰티풀 에이징 "아름다운 늙음의 길"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이동원 목사는 노년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문소현 기자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 차세대를 섬기던 G2G와 KODIA가 하나로 통합됐다.

G2G-KODIA “다음 세대 위해 하나돼”

한인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해 온 두 단체, G2G교육연구소(Generation to Generation Christian Education Center)와 북미한인기독교교육연구소(KODIA, Korean Diaspora Christian Education Institute)가 통합했다. 13일 LA 다운타운 인근 한 호텔에서 열린 통합식에는 남가주와 뉴욕, 캐나다 등지의 목회자 및 2세 사역자, 신학자들이 참석해 두 단체의 통합을 축하했다. 이학준 박사(풀러신학교 교수)가 소장인 G2G는 200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됐고, 노승환 목사(토론토밀알교회)가 소장인 KODIA는 2009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각각 설립됐다. 그러나 두 단체는 지

난 2012년부터 북미주 한인교회 역사상 최초의 3년 과정 신양교재를 공동 개발하는 등 한인 차세대 사역에 협력해 왔다. 현재까지 10학년용 교재 "Living Between"(사이에서 사는 삶)과 11학년용 교재 "Living Together"(함께 사는 삶)가 발간됐고 12학년 교재도 제작이 거의 끝난 상태다. 통합된 단체의 이름은 G2G-KODIA이며 이학준 박사, 노승환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박희민 목사가 이사장을 맡게 됐다. 현장 리서치, 교사 훈련, 커리큘럼 개발, 2세 신학생 및 목회자 멘토링, 학부모 세미나, 목회자 워크숍, 청소년 리더십 훈련 등을 사역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1면으로부터 계속}연방정부는 성전환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 자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2

월 일리노이주의 한 교육구에서 연방교육부가 연방자금 6백만 달러를 중단할 수 있다 위협하자 그 교육구는 여자로 성전환한 학생들이 여자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제공:케이아메리칸포스트]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팔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말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증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2016 아버지 수양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6아버지 수양회...시니어 사역 비전 공유의 시간 가져

미국장로교 산하 리빙위터스 대외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웅 목사)가 주관하고 남대서양대 회 한인교회협의회(회장대행 이문규 목사)가 후원한 '2016 아버지 수양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아틀란타중앙교회(담임 한병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뉴욕 목양장로교회 송병기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또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의 시니어 사역 소개를 비롯한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니어사역의

비전을 공유한 영역별 특강과 상세한 설명이 제공됐다.

말씀을 전한 송병기 목사는 “우리는 예수보다 우리의 지식들을 앞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목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니어사역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져 내년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시니어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대서양 및 리빙위터스대외 가족수양회는 7월 18일(월)~21일(목)까지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는 주제로 한국의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를 주강사로 플로리다 파나마시티의 Edgewater Beach & Golf Resort 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수영 기자



RCA 뉴욕한인교회 2016년도 정기총회가 13일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됐다.

RCA 뉴욕한인교회가 13일 오전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류승례 목사(어린이양육학장로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직전 회장은 나영애 목사(포레스트 پاک교회 담임)였다.

신임회장 류승례 목사는 “RCA 한인교회가 그동안 지켜온 전통처럼 회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금방 지나가는 자리이기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음을 느낀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과 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RCA뉴욕한인교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류승례 목사 선출

일을 위해 회원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며 기도로 섬기고 싶다”고 말했다.

2세 사역에 대한 소망도 나타났다. 류승례 목사는 “이민교회가 2세들을 위한 길을 더욱 열어 주기를 위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 왔다”면서 “RCA 한인교회 안에서 좋은 2세대들이 영입되고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총무를 비롯한 임원단은 추후 논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는 김기호 목사 기도, 나영애 목사 설교, 박준열 목사 광고, 이풍삼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나영애 목사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딤후1:12-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RCA 뉴욕한인교회에는 강주호 목사, 김기호 목사, 김은열 목사, 김종덕 목사, 김혜택 목사, 나영애 목사, 류승례 목사, 박준열 목사, 변옥기 목사, 송홍용 목사, 신성능 목사, 이성희 목사, 이재봉 목사, 임지운 목사, 장성우 목사, 조대형 목사, 이풍삼 목사, 한재홍 목사, 맥스한 목사 등이 가입돼 있다.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15. 인간의 형상을 한 여호와

로마의 최고신은 유피테르다. 로마의 중심 카피톨리노 언덕에는 유피테르 신전이 세워져 있고, 씨저 이래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들은 티투스 개선문에서 시작한 행진을 유피테르신전 앞에서 끝내고 있다. 피정복자에 대한 관용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로마의 전통은 수많은 타민족의 신을 받아들여 왔지만 최고의 신은 역시 유피테르이다.

그리스가 지중해의 주인이던 시절, 그들은 제우스를 최고라 하였다. 올림푸스의 수많은 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제우스는, 예술을 사랑하던 그리스인들의 성품을 닮아서인지, 어딘지 조금 영동하고 허술하며 인간적이다. 로마는 매우 규율이 잡힌 나라이지만 그리스의 예술과 신앙을 흠모하여 신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꿔가며 계승하고 있다.

(저자주 -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던 서기 393년, 유피테르와 관련된 두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로마의 신의 자리에 예수그리스도를 앉히고 유피테르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그리스시절엔 제우스에게 로마에 경기대회인 올림픽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서양역사에서 393년은 그리스로마 문명이 공식적으로 끝난 해가 된다.)

문명이 최초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바알을 최고신으로 삼았다. 두강 사이의 비옥한 땅에서 농사짓는 이들의 신이었던 바알은 그리하여 풍요와 향락의 신이었다. 목축으로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그들을 매혹시킨 것은, 엄격한 창조주 여호와와 가나안, 북쪽 풍요한 땅의 바알신이었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안팎으로 보장되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선택하고선 그들의 끊임없는 바알에 대한 관심에 매번 분노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한 적이 여러번이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여호와와는 어쩌면 이제야 인간이 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아닐까.

로마인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유일신 여호와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여호와와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지중해와 근동에서는 늘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겨왔다. 신의 모습이 없는 유대의 신앙이 저들의 경계를 넘어 로마제국 전체에서 비로소 새로운 신앙으로 받아지는 이유는 이제야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경배의 대상 예수가 손과 눈에 잡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계속>

“방주교회, 사랑의 달 사랑의 점심”



[1면으로부터 계속]방주교회가 매달 한 차례 여는 사랑의 점심 행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더욱 특별하게 진행됐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후원 및 광고 문의 Tel: 213-263-1364 / 213-820-9414
보내실 주소: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Pay to Order: SCKMA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이민사회가 건강하다”

남가주한인목사회장배

목회자 힐성 탁구대회

- 일시: 2016년 6월 20일(월)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소: 현대탁구장 (박홍자탁구교실) / 213-798-3333
3625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 참가대상: 남, 여목사, 사모, 선교사
- 참가비: 20불 (여성, 선교사, 70세이상 참가비 없음)
기념품 및 점심식사 제공
- 마감일자: 5월 31일 화요일 (E-mail: umkyusu@gmail.com)
- 문의: 213-263-1364 / 213-820-9414 / 213-272-6031
- 조직: 대회장: 엄규서 목사
부대회장: 최순길 목사, 김중용 목사
준비위원장: 심진구 목사, 안기정 목사
회계: 허만진 목사 / 부회계: 임성수 목사
진행위원장: 김영배 목사, 김경일 목사
위원: 최경일 목사, 강지원 목사, 백현 목사, 조하림 목사
김영구 목사, 김관진 목사, 송영일 목사, 김용 목사, 양경선 목사 여호수아 이 목사

● 일정:

예선전	오전 9시 - 11시 30분
친교 및 점심	오전 11시 30분 - 1시
준결승	오후 1시 - 2시 30분
결승	오후 2시 30분 - 3시 30분
시상 및 행운권 추첨	오후 3시 30분

● 시상

대상	한국왕복 항공권	1등	귀성당
최우수상	국내여행권(3박4일)	2등	산삼 녹음대보환 (\$380)
우수상	국내여행권(2박3일)	3등	2등
30.40세	1등, 2등, 3등		덕터마우스 (\$200)
50.60세	1등, 2등, 3등		3등
70세이상	1등, 2등, 3등		귀성당 페노환 (\$180)
여성	1등, 2등, 3등		

주최 남가주한인목사회

주관 총신대학교남가주총동문회

후원 남가주교회협의회 / 한국일보 / 한인회 / 한국장로사 / 상호관광 / 박홍자탁구교실 / 기독교서적센터 뉴스타트로피 / 오대산 / 이태리양복점 / 크리스천비전신문사 / 우리복음방송 / 크리스천헤럴드 미주크리стен 신학대학교 / 남가주 그리스도교회 연합회 /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태평양 서남지방회 미주크리стен신문 / 연목회 / 장신동문회 / 서울기독교대학교동문회 / 국민일보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을

마태복음 21:28~3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손길은 이웃을 섬기며 발길은 세계를 복음화로

비유를 곁한 본문의 내용은 대제사장들, 장로들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다가 무리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말만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임을 밝히시며 그들의 행위를 분별지 말라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1. 말아들의 거짓된 불신앙

말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가겠소이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란, 구령(救靈)성과를 위한 영적 사역장, 즉 교회를 일컫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다른 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을 하라는 지시였는데, 아버지께 가겠다고 즉답(即答)은 해놓고 가지 않았으니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태도와 모습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질적 생태(生態)로 마태복음 23장에서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에게 돌보이려고 차는 경문을 넓히고 옷술을 크게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호칭받기를 좋아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지도한다면서도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 거짓 신자, 죽은 심령임을 지적, 경계하라 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했고, 15절에서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겠다"했으며, 16절~19절에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나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하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로 책망하셨고 23~24절에서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 하리라"하셨고 마태복음 23장 27~28절에서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하셨으며, 29~33절에서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하심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지적들이요, 애타는 책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신앙으로 가장하는 것과 외식하는 것, 예수님 이름 위에 군림하거나 행세하려는 율제 뿐인 오만 무례한 종교지도자들을 가장 싫어하심을 명심하고 영적인 성도로 거듭나서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과 부정과 불신이 너무나 만연해 가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일곱 번이나 "화(禍)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하시며 지적하신 생명의 길치레뿐인 죽은 신앙을 책망하실 것 같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로 비유된 세리와 창기들의 회개하고 구원언어 기뻐하는 믿음생활,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에 젖어사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지도자들은 직분적 권위와 교만한 자세를 굽힐 줄 몰라 결국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기회마저 놓치고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는 말씀을 붙들고 서둘러 겸손하게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옳되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시 107:10~12)

2. 둘째 아들의 회심(回心)과 산 신앙

여기 둘째 아들이라 하심은 그 당시 멸시와 천대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던 하급시민(下級市民)들로 본문(本文)에 명기(明記)된 세리들과 창기들같은 수준의 천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싫소이다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회심을 통한 구원언어 기쁨과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생명사역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뢰와 기대 가운데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세시(在世時)에도 여러고의 세리장 사개오, 거리의 소경 가지 바다메오, 수가성의 창녀등 죄값에 시달리던 수많은 밑바닥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오순절 이후 성령충만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위력이 전세계로 뻗어 가던 중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을 허락해서 120여 년의 한국 교회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먼저 믿었다는 분들의 언행(言行)이 본(本)을 세우지 못한 폐단으로 새신자 전도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이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불행한 심령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는 소망적 신앙

마태복음 5:13~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신 말씀대로 복사는 참 목사다운 언행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들도 제각기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며 언어예절과 겸손히 섬김의 자세를 갖추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사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이 하나

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도라면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게 되어 있고 인간 자기 입장보다 주님의 입장을 따라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희생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관용하고 봉사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18절에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흑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쩌다가 받아 들처럼 말씀에 붙잡히지도 이끌리지도 못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외식하는 거짓 신앙으로 심령이 죽어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둘째 아들을 본받아 서둘러 회심하여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거듭나며 말씀과 성령께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으로 전도에 힘쓰는 포도원의 생명사역 역군이 됩시다.

나부터 서둘러 구원언어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섭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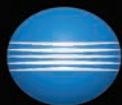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주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 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교육칼럼(5)

십대 자녀 바로 세우기(5)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과거나 현재,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십대 청소년들이 접하는 것은 (1) 신체 및 심리적 변화 및 성장, (2) 논리적 사고 발달, (3) 윤리와 가치에 대한 질문, (4) 성과 결혼에 관한 생각, 그리고 (5) 장래에 대한 질문과 걱정이다. 그리고, 종전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기준과 정의에 중립적인, 무관심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은 윤리, 도덕, 그리고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포스트-모던, 포스트-기독교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세대는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그리고 윤리적, 비윤리적인 것을 구별하고 분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별의 기준은 성경을 기초로 한 사상과 가치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배우고 있으며, 그냥 자신에게 편한 것이 좋은 것이고, 남을 불편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세상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

특히 종교에 대해선, 부모와 분리하려는 자연적인 과정,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성립하는 과정 속에서 종교의 필요성, 신과 종교란

체의 존재 이유 등을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런 질문의 기반은 (1)종교 다원주의와 (2)과학주의 (scientism: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으로 풀고 접근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전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다문화 및 다종교권의 사람들과 정보를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기에 너무 쉽게 부모의 신앙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다. 그러나, 아직도 종교를 중요히 여기는 학생이 약 50%가 넘으며, 약 82%의 청소년이 자신이 종교적 그룹의 멤버라고 인정한다. 또한 36%의 청소년들은 “신” 내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으며, 55%는 신이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생각하며, 약 40%의 청소년들은 종교적 예배에 매주 참여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이런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청소년은 신학적인 이해나 교리보다 관계나 체험을 통해 다가갈 수 있는 종교에 관심을 보인다. 만약 어떤 종교적 단체나 그룹이 청소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지원하고, 배려한다면 그 단체의 종교적인 기준과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 그룹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다.

부모가 종교를 “강요”한다고 느끼든지,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고, 더 나아가 의지가 강한 아이(strong-willed child)는 부모의 종교를 거부하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소식은 이런 청소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아직도 청소년들에게는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임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증명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를 접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인내하고, 십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와 가치와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우리 청소년들. 부모와 교사, 가르치는 모든 이들이 이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대해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우현 칼럼

간음



정우현 교수
미드웨스턴침신대 상담학

“사랑해요...” “저도요.” “물어본 겁니다.” “저도 사랑해요.”

군인인 남자는 조국과 여자를 위해 목숨 건 사랑을 했다. 둘은 위기의 순간들을 함께 극복했고 결국 여자는 남자를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였다.

남녀 주인공은 가벼운 키스 후 아름다운 대화로 드라마의 마지막 막을 장식한다. 달콤한 대화만으로 이들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짐작이 된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순수한 애정을 사랑했다. 키스는 이들 사랑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관심 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일류였다.

우리가 바라는 남녀 사랑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 쾌락도 아니고 돈으로 마음을 사는 샴류도 아니다.

서로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작은 기쁨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예쁜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다름 아닌 잘못된 성(性) 관념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CS 루이스는 사람의 성이 대단히 위대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유치한 것도 아니라 말한다. 성을 높은 자리에 추대하면 파괴적 괴물이 되어 삶을 망가뜨린다.

포르노그래피가 그렇다.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에는 관심 없다. 대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동물적 쾌감만 있을 뿐이다.

한편 성을 더러운 괴물정도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다. 사람의 성욕을 무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오만이다.

성(性)은 성기(性器)와 다르다. 성에 해당하는 한자는 마음(心)과 몸(生)의 합성어다. 성은 성적인 쾌락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몸의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남녀가 서로 인격과 이성(異性)으로서 다름을 이해하고 좋아해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성이다.

한마음이 되는 것을 100% 완성하기는 어렵지만, 남녀가 마음으로 가까워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이다. 이 과정에 육체적 결합이 포함될 뿐이다.

육체적 결합이 곧 성이라는 등

식은 오류다. 인간의 존엄성(dignity)을 평가절하하는 심각한 오산이다.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한 성관계는 말그대로 성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짐승도 한다. 사람이 아니어도 생식기를 가진 동물이면 할 수 있다.

건전한 성관념을 배우지 못한 성인아이가 청소년기에 머무는 이유가 성과 성관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적절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성관계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성기는 없어도 사랑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성관계는 공허와 좌절을 부를 뿐이다. 어둠의 높으로 가는 비극의 통로이며 관계 파괴적이다.

사람들을 속여야 하는지라 괴롭지만, 미끄럼틀처럼 멈추기 어렵다. 쾌락에 소유를 바치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자기 자신까지 제물로 내어주는 순서다. 이게 간음이다. 성관계를 사랑이라 믿으려는 가증스러운 속임수다.

뇌는 사랑과 중독을 구별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부심을 헤아리기에 뇌는 너무 단순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뇌와 중독자의 뇌가 유사하다는 것을 아는가?

사랑과 중독의 경우 모두 도파민과 엔도르핀 계열의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래서 뇌는 육체적 쾌감이 곧 자부심인 것처럼 착각한다. 성적 쾌락이 행복한 사랑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뇌는 속일 수 있어도 양심은 속일 수 없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한 기분, 그 중독성은 강렬하다. 다행히 이러한 유사 행복감의 트랩 앞에서 양심이 알람을 울려준다. 양심의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

고 질주한다면 결국 배우자와 자녀의 마음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 위험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배우자 사랑하기다.

우리는 인류에게 부여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혼인 서약이라는 제도를 사용해 왔다.

신과 사람들 앞에서 맺는 부부 언약은 ‘성’이 ‘성관계’짜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다. 혼인 서약은 마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굳건한 성벽과도 같다. 칼을 막아주는 강철 방패이며 폭풍우를 막아주는 집이다.

성 문제 전문 상담가 페너 부부는 결혼을 자동차로 비유했다. 성은 유행유로써 필요하지만, 진실감은 부부의 평생 헌신이라는 엔진의 연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결혼이 끝까지 잘 굴러가기 위해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마음으로 사는 부부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한다. 남편은 신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한다.

물론 쉽지 않다. 노력이 필요하며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 사랑한 부모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비참한 저주의 그늘 밖에서 영광스럽게 자신의 존엄성을 누리며 사는 빛의 후예들을 보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꿈이 되어야 한다.

간음은 천만금과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일순간 파괴하는 살상무기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늦지 않았다.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해야 한다. 지금이다. 망가진 관계들을 고치는 작업을 시작할 순간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 여정의 방향을 수치에서 영광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이 작업은 평생 해야 할 위대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완전한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선착순
100명
한정

CA 지역 목회자, 선교사 부부 초청

교회부흥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공개집회:히브리 문화와 성경(6월 27일~29일, 저녁7:30)

한국 세종시에 개척 교회 시작, 하나님 은혜로 장년 성도 1,000명으로 급성장한 선우 권 목사님 초청!
개척 3년만에 종교부지 500평, 연건평 1300평의 1200석 성전 준공!
상가에서 출발해 매 주일 몇 가정씩 등록시키고 정착시키는 다양한 전도 방법, 새 가족, 특별 조직 관리!
히브리문화와 언어의 비밀을 풀어 주면서 각처에서 모여들게 하는 능력의 메시지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 ❁ **일시:** ① 세미나 - 6월 27일(월) 오후2시 부터
강의: Mon 2:00pm ~ 6:00pm (디너포함)
Tue, Wed 10:00am ~ 6:00pm (런치와 디너 포함)
② 평신도 공개집회 월,화,수 저녁7:30
*수요일 밤10시에 강의 종료와 함께 미주목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드립니다.



강사: 선우 권 목사

전.LA총신교회 개척시무(10년)
전.분당 남서울교회 개척시무(3년)
전.수지제자교회 개척시무(11년)
세종은누리교회 개척(4년)
개척3년후 부터 설교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천명이상의 성도들이
히브리어 원문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세종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 ❁ **회비:** \$40 (모든 교재와 식사포함). 송금 마감:6월15일
체크를 다운니제일교회로 보내주세요
pay to: Kwon Sunwoo Bank:우리은행 1721000410
- ❁ **세미나 장소:** 다운니 제일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담임: 안성복 목사 (562)861-1004

이메일 등록, 문자등록 or 문의

- doctorsmchoi@gmail.com Tel:(760)636-2675
- 최승목 목사(CA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 한국으로 문의(이메일) 선우 권 목사 sunwookwon@hanmail.net
- 한국으로 등록(카톡) 010-2379-7938(유튜브 설교:선우권목사)

세미나 내용

1. 어떻게 개척교회가 단 기간에 대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2.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와 멀리서도 이 교회를 찾아 올 수 밖에 없는 비결.
3. 생명 넘치는 설교, 히브리 문화와 원문설교를 쉽게하면서 영성설교로 연결.
4. 제자양육과 목장관리, 전도의 새 비법, 불신자를 전도하는 새 관계 전도 방법.
5.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관리 조직 비결!



1200석을 메우는 세종은누리교회 주일 아침예배 장면



GSM 동역선교대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차 GSM 일대일 동역선교 유럽 대회”

GSM선한목자선교회 주최...후원자와 선교사 일대일 연결 브릿지

후원자와 선교사를 일대일로 연결하고 후원금 전액을 선교사에게 보내는 GSM 선한목자선교회(대표 황선규 목사, 이하 GSM)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한인교회(담임 권순태 목사)에서 “제1차 GSM 일대일 동역 선교 유럽 대회”를 개최하고 유럽 선교의 확장 과 부흥을 모색했다.

GSM 유럽대회는 북음전도가 점차 어려워지는 유럽 지역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북음을 전하고 있는 GSM 선교사들과 유럽 한인선교사들이 만나, 유럽의 선교 현황을 나누고 동역 선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황선규 목사는 “GSM 제 1차 유럽 대회를 통해 유럽의 선교 역사와 현황을 나누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비전을 나눴던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1:1동역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십자가 북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유럽 선교가 힘차게 일어나는 도약의 발판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교대회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지의 기독교 유적지를 순방하며 후방선교사들과 선교 현지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고 특별히 유럽 선교사들의 고충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GSM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GSM 1:1동역 선교 유럽 대회에는 서유럽 선교사 27명을 비롯해 미국, 한국,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터키 등지에서 전후방 선교사 50여 명이 모

여 유럽 선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유럽 이슬람 사역, 유럽 북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 및 방안 등을 나눴다.

또한 세미나 및 전략 강의 시간에는 황선규 목사가 GSM 1:1 동역 선교 전략, 김만풍 목사가 아노넨 전도법 및 기독교 교회사, 하영광 선교사가 짐다리 접근법, 조봉기 선교사가 노방 및 기타 전도법 등을 전했다.

나승필 선교사는 유럽선교 현재와 미래, 권순태 선교사가 종교개혁에 대한 현대적 시각, 이은옥 선교사가 어린이 교육 선교 전략, 박용관 선교사가 유럽선교 전략, 서유럽 및 기타 선교사가 각기 선교현황과 전망에 대해 전했다.

GSM은 내년도 5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선교대회를 갖고 이어서 독일 베를린에서 선교의 밤 행사를 통해 유럽 선교의 확대를 이룰 계획이다.

한편 GSM은 2002년 11명의 후원자가 6명의 선교사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미국과 한국정부에 세금 면제 선교기관으로 등록하고 초교파, 초민족적으로 월 100불 후원을 기본으로 현재는 700명의 선교사와 800명의 후원자가 1:1로 연결되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선교단체로 성장했다.

또 GSM은 선교사 1,000명, 후원자 2,000명이 동역하는 선교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선교지 교회 건축, 병원, 신학교, 고아원 기타 건축물 및 우물 파주기 등 선교 확장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조지아주한인침례교회 주최 예수잔치 참석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다음세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자”

침례교회 예수잔치 성료...다음세대 위한 관심과 기도 뜨거웠던 집회

조지아주한인침례교회협의회(회장 박정규)가 주최하고 미남침례교조지아주총회가 후원한 ‘2016 예수잔치’가 성료됐다.

13일~15일까지 새생명교회(담임 조응수 목사)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위한 관심과 기도’가 뜨거웠던 집회였다.

이번 집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날 13일(금) ‘보게 하소서’, 둘째날 14일(토) ‘위해 것을 보게 하소서’, 셋째날 15일(주일) ‘승리하게 하소서’ 등의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14일(토) 오전에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청소년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됐다.

침례교 관계자들의 기도모임으로 준비된 집회는 매일 저녁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김재이 목사의 말씀이 어우러져 열기를 더했다.

집회 첫날인 13일, 2세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초점을 맞춰 전한 김재이 목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있기는 하지만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아동기의 상처를 방지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작은 상처 하나로 콤플렉스가 되어 평생 자신감 결여, 부정적인 대인 관계를 차례로 유발시켜 결국은 파괴적인 삶을 살게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우리 자녀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그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

고 부모가 몸소 기독교적 삶을 실천할 때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날 목사는 어머니의 요구와 청소년의 요구를 표현한 동영상 상을 차례로 소개하며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는 “미국의 한인 청소년들은 성행위, 임신, 낙태, 마약중독 등에 빠진 학우들과 함께 생활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다. 경험하고 싶은 것과 유혹들이 많아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해로운 것은 지금은 용감하게 ‘No’ 라고 말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고의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자”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목사는 “자녀가 정말 아파하는 이유를 아는가?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시간을 내고 있는가? 자녀들도 부모와 유사하게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부모들의 변화를 당부했다.

박정규 회장은 “조지아주에는 55개 한인침례교회가 있다.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이 가장 신앙을 쉽고 빠르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의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윤수영 기자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에게 이단(2세)을 책임지며, 이단(2세)을 치료하며, 선교영역을 순증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써니사이드교회
하루를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토 옆) T.(213)380-0071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제선 담임목사

장태원 담임목사

한천영 담임목사

엘리아 김 담임목사

진유철 담임목사

한기형 담임목사

서건우 담임목사

박현성 담임목사

김문수 담임목사

정우성 담임목사

김경렬 담임목사

김요섭 담임목사

김영구 담임목사

김요섭 담임목사

정장수 담임목사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베네딕트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류종길 담임목사

신승훈 담임목사

이명수 담임목사

민중기 담임목사

곽부환 담임목사

김지원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기독교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선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310) 530-8400/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學內 예수님 언급 허가받아야 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 학내 클럽들의 허가없는 예수님 언급 불허

최근 폭스뉴스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은 학내에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경우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 대학은 학내 클럽인 그레이스미션라이프(Grace Mission Life, 이하 GML)에게 학교 허가없이 다른 학생들과 종교적 얘기나 클럽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학교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 GML 클럽 대표로 종교적 자유를 위해 일하고 있는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하 ADF) 법률 사무소는 학교가 언론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이지 아니므로 허가 정책을 없애라고 설득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하

게 됐다고 말했다. ADF는 “학교 측은 기독교 클럽에게만 언론 허가를 요구하고 기타 다른 학생이나 클럽에게는 언론 제한이 없다고 했다”며 “학교의 규칙이 얼마나 가혹한지 기독교 학생들은 학내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클럽 회장은 “학교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곳이어야 하고 학생들이 받아야 할 언론 허가는 헌법 뿐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 시민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가 크리스천인 학생들을 공격한다면 이는 그 누구나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매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영인 기자

“존 파이퍼 목사 ‘성증립적 화장실’ 반대”

하나님을 의식하고 ... 깨끗한 양심 유지하기 위해



존 파이퍼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가 대형할인매장인 ‘타겟’의 화장실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타겟은 소비자들에게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성적 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느꼈다. 이는 법원에서 나온 문장 중 가장 파괴적일 것이다. 이 언급은 필연적으로 인류의 마음에 도덕적 붕괴를 일으킨다”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심오한 죄, 심각한 타락, 하나님을 무시하는 왜곡이 만연하고, 수용되고, 옹호받는 문화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죄에 반대하여 위협하면서도 인기가 없는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16일 자신의 웹사이트 ‘하나님을 향한 갈망’(DesiringGod.org)에 올린 글에서 파이퍼 목사는 “가능하다면 성증립적 화장실 사용을 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 내가 성증립적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고속도로에 멈춰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삶의 일관성과 저항의 작은 행동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다. 나의 행동이 이같은 정책을 결정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내 양심을 깨끗이 지키고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내 삶에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2년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미국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 판결에서 언급한 내용을 지적했다.

당시 케네디 대법관은 “자유 중심에는 존재, 우주의 의미, 인생의 신비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다시 보강했다.

이에 대해 파이퍼 목사는 “트랜스젠더·동성결혼·낙태운동의 핵심에 있는

그는 “외부적·성경적 삶의 형태가 규범이었던 때와 다른 기준에서 자란 사람들을 관찰했다. 전자에는 최소한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 내재된 혐오감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러나 매우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은 그때와는 다른 세계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동일한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성적체성과 타겟의 화장실 정책도 케네디 대법관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서 보았다.

그는 “젊은 세대들은 반드시 온전히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인간의 부패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할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파이퍼 목사는 ‘성정체성’의 개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 성정체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다. 이는 새로운 코드를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성’(gender)이란 말은 이제 남성 혹은 여성의 생물학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남성’, ‘소위 말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심지어 성적인 실체가 원하는 정체성과 다르다고 해도 그러하다. 이것이 성정체성이 의미하는 바이다. 케네디 대법관의 언급을 가장 최근에 적용한 것이다”라고도 전했다.

강혜진 기자

“美IVF, 톰 린 신임 대표 선출... 아시아계 최초”



톰 린 신임대표 ©IVF

미국 대학 선교단체 IVF(Inv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대만계 미국인 톰 린(Tom Lin)을 대표로 맞게 됐다. 그는 IVF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출신 대표가 됐다.

미국IVF는 그동안 청년 선교대회인 어바마 콘퍼런스와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내부 프로그램 등 다민족 사역을 추구해 왔으며, 린은 5년간 이 프로그램들을 맡아 왔다.

그는 “IVF 리더십 가운데 남성, 여성, 소수인종 등이 많다.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도달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비(非)백인계 회장이 선출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린 신임 대표는 25년간 캠퍼스 사역을

감당해 왔으며, 1994년에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IVF 모임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몽골에서 캠퍼스 사역을 일으키고, 보스턴대학교에서는 지역 대표 및 선교회 부대표를 지냈다.

이후 25개국 도시를 위한 단기팀 프로젝트와 유학생 사역, 학생 선교훈련, 100개국 IVF 지부와의 협력 등을 주도했다.

그는 특히 학생단체의 세속화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도전들 속에 650개 캠퍼스 내 41,000명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IVF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헬렌 리(Helen Lee)는 크리스체너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선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중요한 리더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의도적으로 다양한 인종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욱 그러하다. 톰 대표와 IVF의 경우, 우리가 내외적으로 수십 년 동안 다민족 사역에 헌신하고 투자해 온 열매”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중국 베이징에 과학과 신앙을 전한 서양 선교사들

도심 한복판의 베이징 고(古)관상대
1442년(명나라 정통 7년) 건립돼
600여 년의 역사 자랑
천문기구들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도입돼

◆**관상대와 서양 선교사들**
 이곳에는 명·청나라 양대 왕조가 500여 년간 천문대로 사용하며 관측을 수행했고, 14m 높이의 건물에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던 혼천의(渾天儀)와 항성의 위치와 별자리·적도·황도 등을 기입한 모형천구 천구의(天球儀), 천구의 수평과 수직 등 각도를 측정하는 경위의(經緯儀)와 육분의(六分儀) 등 8개의 천문기구가 자리해 있다.

현재 중국 '중요문화유산단위'로 지정된 고관상대는 중국 관광객들 중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드물게 한산한 편이다. 화원처럼 꾸며져 있다. 또 이곳에 있는 천문기구들은 서양 선교사(가톨릭)들에게서 비롯됐다.

중국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을 비롯해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등 개신교 선교사들이 19세기에야 중국 선교의 문을 연 데 비해, 가톨릭(천주교) 선교사들은 실크로드 또는 바닷길을 따라 1년 가까운 여정을 거쳐 16-17세기부터 중국 땅에서 활동했다.

실제로 이곳의 천문관측기구들은 조형과 장식, 공예 등은 전형적인 '중국식'이지만, 눈금과 계기, 구조 등의 부분에선 철저히 서양식인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지금은 '서양 선교사들의 그 흔적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하는 기구들에서만 찾을 수 있다.

◆**남아 있는 성당들과 왕부정 거리**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천주교 성당은 남당(南堂)이다. 중국에선 '쉬

안우먼탕(宣武門天主堂)'으로 불린다. 1605년 잘 알려진 이탈리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 선교사가 선무문 안에 작은 천주교회 '남당'을 세웠고, 이를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1-1666)이 1650년 전면 증축했다. 한옥 지붕이 이채로운 남당 입구에는 마테오 리치 선교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호수 뒤로 '만복(萬福)'이라 새겨진 바위 위로 성모상이 있다. 호수 안에는 여러 나라의 동전들이 들어 있다. 예배당 건물은 바로크식의 웅장한 아치형 문을 자랑하고, 실내는 로마식 인테리어라고 한다. 의자와 제반 시설들이 매우 낡아 문화재 같은 느낌을 준다.

예배당 건물 뒤에는 결혼식 장소로 쓰여도 될 만한 정원이 둘러싼 숙소 등의 한가운데에 있다.

'탕약망(湯若望)'이라 불리는 아담 샬 선교사의 이름은, 올해 흥성사에서 나온 기독교 역사추리소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에 등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담 샬 선교사는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가 있던 소현세자와 친분을 맺고, 천문서적과 과학서적, 천구의 등을 선물로 받아 서양 문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방문하며 대화를 나누고 서신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내용 중 일부가 이 소설에 소개된 것이다.

남당은 1775년 한 차례 화재로



중국의 '마천루'와 조화를 이룬 고관상대의 관측 기구들.

소실돼 청 건륭제가 하사한 은 2만 냥으로 다시 건축됐고, 서양 문물에 대한 배척운동이 일던 1900년 또다시 불에 타면서 1904년 다시 세워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현재 베이징 내 외국인 천주교 신자들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베이징 최고의 변화가 '왕부정거리' 인근에는 왕푸징 성당(동당(東堂))이 있다.

이곳도 고풍스러워 보이는 건물 정면 모습처럼 역사가 오래됐다. 1655년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청나라 3대 순치제(順治帝)가 두 명의 외국 신부에게 하사한 저택으로 출발했다.

이 둘은 공터에 작은 예배당을 지었으나, 이는 수 차례 훼손과 소멸을 반복하다 1904년과 1980년 다시 건축돼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2000년 왕부정거리 확장공사 때문에 정부가 무려 1.3억 위안을 투자해 내외부를 다시 손봤다고 한다.

사원 담장을 없앤 대신 사원 앞 광장을 확장하고, 분수와 가로등, 성 요셉 기념 정자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길가에 있던 건물은 안쪽으로 2m 정도 이동했다.

◆**남아있는 교회들**
 베이징관광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1930년대는 베이징 교회당의 전성시대로서 시내에만 약 8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고, 그 외 교회에서 설립한 수많은 중학교, 대학교, 병원, 도서관 등 기독교 문화 특유의 건축물들이 존재했다"며 "교회당 등 기독교 건축물들은 옛 베이징 건축의 독특한 일부로서 남아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베이징관광국이 소개하고 있는 교회들은 지난해에 소개한 총원문 교회를 포함해 5곳이다.

관제탕(寬街堂·관가)교회는 총원문교회처럼 미국감리회가 베이징에 설립한 8개 교회당 중 하나였는데, 2000년 8월 평안(平安)대로를 건설할 때 관제에서 현 디안먼둥다제(地安門東大街)로 이전했다. 이곳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예배를 드린 곳이기도 하다.

주스커우탕(珠市口堂·주시구)교회는 청나라 말엽인 1904년 착공됐으며, 이 역시 미국감리회가 설립했다. 베이징 남부에서 유일하게 간이 고딕 형식을 살린 이 교회는 3층 높이의 건축물이며,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동당처럼 2000년 도로를 확장하면서 교회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정문의 남북쪽으로 보조 도로를 설치했는데, 결과적으로 광안다제(廣安大街) 속 작은 섬 같은 느낌을 준다.

원래 내외관이 매우 소박했으나, 이 과정에서 당국이 1백만 위안을 투자해 예배당을 보수하면서 독특한 외관을 갖게 됐다.

현재 베이징 시내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예배당은 1904년 건축된 강와스탕(缸瓦市堂·항와시)교회다. 현재 베이징 시쓰난따제(西四南大街)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명한 중국 작가 라오서(老舍) 선생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일부 신도와 교회의 삼자운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는 또 젊은 시절 이곳에서 개설한 영어 야학을 다닌 적이 있고, 교회 뒤에 위치한 사원에 한 동안 머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하이토펙탕(海澱堂·해정)교회로, 이곳은 원래 베이징 공리회 산하 채플이었다. 1922년 엔징(燕京)신학원을 졸업한 치귀둥 선생이 전도사를 맡았고, 2003년 사스 발생 후 도서성(圖書城)으로 이전했으며, 2005년 새 교회당이 정초식을 갖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대웅 기자



고관상대 기구들은 중국식 외관에 서구식 측정법을 담고 있다.



1605년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세운 로마식의 남당 예배당 내부 모습.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p>모집 부문</p>	<p>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p> <p>신학 대학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p>일반 대학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p>홈스쿨링</p> <p>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p> <p><small>*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small></p>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금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결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칭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장화),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발행음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시디 **소양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시디발행음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결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시디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시착으로 발송장에서의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크리스천들의 비즈니스 무기를 만듭니다

sophiaproduction1.wix.com/2016

소피아 프로덕션

SOPHIA PRODUCTION

인쇄광고, 온라인광고, 그래픽디자인, TV광고기획, 스토리보드, 비디오편집, 초상화, 정밀묘사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녀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산화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한수의 칼럼(6)공감적 경청(공감적 경청이 어려운 이유3-끝)

알파고는 대신 할 수 없는 경청의 기술

한동안 어디를 가나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던 때가 있었다.

세계 최고의 실력자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로봇의 활약을 보면서 앞으로 인간이 감당할 역할이 어디까지 침범 당하게 될 지 한편 두려움과 쓸쓸함을 모두 느꼈던 듯하다.

그런가하면 아카데미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영화 "Her"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인화된 미래의 도시에서, 인격형 인공지능체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그려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세태가 이러하다면, '경청전문로봇'의 등장도 머지않을 듯하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단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소문날 염려없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며, 적당한 추임새까지 넣어주는 새로운 로봇에 사람들은 열광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언컨대, 사람이 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청을 로봇이 절대 대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품은 좋은 뜻이 바람직하지 않은 전달 방식을 통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청의 기술을 알 필요가 있다. 경청을 할 때는 먼저 눈맞춤을 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관심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 있다는 표현이다. 난 당신의 세밀한 표정과 몸짓에서 당신의 좌절과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볼 수 있다는 표현이며, 당신의 반짝이는 눈에서 당신이 갖는 자랑스러움과 기대와 벽차오름을 본다는 이야기다. 고개를 끄덕여 주며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 또한 경청에 필요한 기술이다.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군요."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나오는 다를 수 있으나, 당신이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느끼는 것들을 인정한다는 표현이다. 내 생각을 일단 멈추고 상대의 생각을 그저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솔한 기도들과 하소연을 그저 묵묵히 들어주셨던 주님처럼 말이다.

백트래킹의 기법(backtracking)도 사용한다. 백트래킹이란 상대방이 강조한 동사나 명사를 따라 말하며 반응하는 대화법이다. 상대가 한 말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반복해 주는 작업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역설적으로 그 속에서 대화의 깊이와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자신이 한 말을 다시 읊었을 뿐인데 그에 따른 상대의 반응은 자기의 말을 부인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때론 공감받는 것에 위로 받기도 한다.

경청의 또 다른 기술은 미러링(mirroring), 즉 타인의 거울이 되어 주는 것이다. 백트래킹이 상대방의 말을 따라 하는 것이라면, 미러링은 타인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따라 해 주는 기술이다. 예를들면 상대방이 물건을 들 때 함께 들어 준다거나, 상대방이 턱을 꿀 때 따라서 턱을 괴고 들어주는 행동들을 말한다. 한 실험에 따르면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도가 높을수록 한쪽에서 잔을 들 때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함께 잔을 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러링은 서로간의 심리적 다리를 이

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경청의 마지막 기술은 페이스(pacing) 기술이다. 페이스는 보조를 맞추는 의미로 특히 상대방의 호흡과 목소리 톤을 맞추는 방법이다. 상대가 들떠서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시무룩한 목소리로 대꾸해주는 사람에게서 경청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다. 페이스의 기술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마음의 습성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틀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호흡을 맞출 수는 없다. 타인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의 호흡에 자신의 호흡을 동조하기란 어렵다. 내 마음의 판단들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호흡을 맞춰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훨씬 의미있고 실감나게 내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경청이 갖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변화는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는 데서 비롯된다. 경청이 정말 필요한 순간은 상대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들어내지 못할 때이며, 자신의 연약함에 스스로 실망할 때이다.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선함을 어떤 너절한 모습속에서도 발견하고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이유는 듣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주님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소명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칼럼

성령 강림절에 드리는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함께 모여 "약속"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다. 이 약속은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이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따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성령이 오



이돈하 목사
오레곤벨엘장로교회

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결국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가 되는 날 성령이 임했다. 이 날이 예수님이 죽으신 유월절로부터 오십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절(五旬節)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과연 증인 된 삶을 살고 있는 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예수님은 다음의 4가지 영역에서 증인된 삶을 강조하셨다.

첫째,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라 하셨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예루살렘은 가정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영역에서는 말 보다 실제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유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는 우리와 관계된 지역 사회 일 수 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가 유대이다.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고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다. 또한 미국도 교회 참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셋째,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유대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민족이었다. 본래 같은 민족이었지만 솔로몬 이후 분열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또한 앗수르에게 멸망되어 혼혈 민족이 된 뒤에는 이질감이 더욱 심화되어 원수지간이 되었다.

오늘날 남한의 사마리아는 북한일 수 있다. 현재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세계 1위 박해국가가 14년째 북한이다. 지금도 2,500여 만명의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복음 통일,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넷째는 땅 끝 증인되는 것이다. 오늘 날의 땅 끝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일 수 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생각할 때 현 시점이 얼마나 긴박한지 알 수 있다. 사고, 박해, 공해, 질병, 죽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하지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와 시는 알 수 없다. 기회가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다민족 사람들에게 삶과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령강림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김만태 전문칼럼(3)-대학설립ABC

대학 인가의 유형과 심사 절차

미국에서 대학을 설립, 운영하려면 먼저 주정부 교육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가리켜 승인(Approval)이라고 하며 연방교육부 수준에서 허가받는 경우를 인가(Accreditation)라고 한다.

인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연방인가(National accreditation)와 지역인가(Regional accreditation)이다.

명칭상으로는 연방인가가 더 권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역인가가 최고의 권위가 있고 취득하기가 가장 어려우며 오래 걸린다. 지역인가는 미국 전역을 8개 지

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권에 인가기관을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서부지역권에 속하며 회원학교를 예로 들자면 UC 계열, 칼스테이트와 같은 주립대학, 스탠포드, USC, 풀러신학교 등이다. 이 학교들 간에는 상호 학위 인정, 학점 교류가 가능하다. 또한 8개 지역권 간에 상호 인정하고 교류한다.

한편 연방인가 기관들의 수는 50개가 넘으며, 지역인가가 학교 전체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연방인가는 대부분 전공별 인가이다. 예를 들면, 음악 분야 인가기관

은 NASM(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Music)이고, ESL 인가기관으로는 CEA(Commission on English Language Program Accreditation)가 있으며 한의학



김만태 대표
SAS인가컨설팅

의 경우는 ACAOM(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이며, 취업 중심의 전공들을 포괄하여 인가하며 회원 학교 수가 가장 많은 인가기관(900여 회원학교)으로 ACICS(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가 있다.

각 인가기관에서 인가받은 학교들은 상호 간에 학위, 학점 교류를 할 수 있다.

심사절차는 보통 3단계로 구성되는데 (1)자격 단계(Eligibility) (2)후보 단계(Candidacy) (3)인가 단계

(Accreditation)이다.

지역 인가는 취득하는 데에 최소 6년, 연방인가는 최소 1년 반에서 4년이 걸린다.

신청비, 심사 경비는 지역인가는 5만 불 내외, 연방인가는 2만불에서 3만불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 경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인가를 신청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문의: 213-531-7215
▲이메일: summitus37@gmail.com

미주 제 59차 성경완독집회
2016년 6월 13일(월)~16일(목)

3박 4일

성경 66권 완독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강사 안성기 목사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강사 김동진 목사
한국요한선교단 대표


 강사 임현영 선교사
우크라이나 선교사


 강사 이회철 목사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강사 김동원 목사
헬리웃효순장로교회 담임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 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성경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일시	2016년 6월 13일(월)~16일(목)	참가비	1인당 \$70, 부부 \$100
장소	헬리웃효순장로교회(담임:김동원 목사) 1101 S. Elden Ave., L. A. CA 90006 Tel : (213) 268-3589	등록	6월 13일(월) 당일 오전 9시~10시
주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퍼백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개회예배	6월 13일(월) 오전 10:00
		수료식	6월 16일(목) 오후 6:00
		특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암송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 : (213)268-3589



1101 S. Elden Ave., L. A. CA 90006

주최 :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 한국요한선교단 후원 : 기독일보, 갯스윌연합교회, 헬리웃효순장로교회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요한복음 3장 강해

마틴 로이드 존스 | 복있는 사람 | 578쪽

마틴 로이드 존스의 미출간 설교인 『요한복음 3장 강해』는 그의 후기 사역의 진수를 보여준다. 1966년 1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일 오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4회에 걸쳐 전해진 이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의 본질을 파헤친다. 본서를 통해 독자들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넘어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충만한' 관계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될 것이다.



축복의 힘

김홍진 | 쿰란출판사 | 260쪽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확하게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 복 받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 복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된 저자는 축복하는 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축복하는 방법, 축복의 능력과 실천에 초점을 두었기에 축복의 실천적 삶에 큰 도움이 된다.



바울 연구 입문

데이비드 G. 호렐 | CLC | 312쪽

본서는 바울의 생애, 신학, 서신, 선교 여행 등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만 명료하고 분석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 생애 서신 등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들의 입문서로서 탁월한 책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연구에 대한 책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바울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예수 닮는 사람

이태근 | 넥서스CROSS | 204쪽

본서는 《예수 닮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묵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만든 30일 묵상집이다.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 세 번째 선언인 "나는 양의 문이다"와 네 번째 선언인 "나는 선한 목자이다"를 하나의 선언으로 다루어 총 6개의 선언을 묵상하고 있다. 모든 영적 생활이 그러하듯 묵상도 훈련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북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

케네스 배, 북한 억류 735일을 말하다

본서는 북한 억류 735일만에 집으로 돌아온 케네스 배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길고 긴 씨름 풀 스토리를 담고 있다.

폐쇄된 국가에 예기치 않게 억류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나를 구해 주세요”의 기도에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되기까지 한 크리스천의 처절한 자기포기와 헌신, 인내와 소망의 기록이다. 한미 동시 출간됐다.

2012년 11월 3일, 평범한 11월의 어느 날이 누구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다. 여행 사업을 하던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는 단체 관

객들과 함께 어느 날처럼 북한을 방문해 투여 중이었다. 이미 수차례 방문을 했고 정부 관계자들과도 안면이 있을 정도로 익숙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은 바뀌었다. 익숙한 모든 것들이 케네스 배를 배신했고, 웃으며 인사하던 북한 관계자들의 손에 붙들려 어딘가로 이송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케네스 배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북한 당국을 위협하는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었다. 심대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가 고등, 대학 과정을 마치고 사업가로 살아가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는 미국의 보호도, 인권 탄압이라는 전 세계의 목소리도 무색하게 폐쇄 공간 북한



잊지 않았다
케네스 배
두란노 | 372쪽

에 억류되고 말았다.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은 케네스 배의 735일 여정이 고스란히 보여준

다. 한 사람의 인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전 세계가 그에게 관심을 두게 되고 나서야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북한을 위한 기도와 그의 석방을 위한 기도를 세계인들이 하게 되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은 나누어진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혀진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케네스 배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케네스 배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던 북한 관계자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다. 케네스 배가 억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너는 누구냐?” “네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너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누구냐?”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과 다름없다. 잃어버린 양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나를 구해 달라고, 나의 문제를 털어놓는 우리의 현재를 케네스 배의 고백을 통해 독자들은 바로 이 질문을 겸허히 답해 보게 될 것이다.

북한 땅을 위해, 북한 영혼을 위해 무릎을 꿇고 “나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명을 점검하게 한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케네스 배는 현재 북한의 인권과 선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전문점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8:00 PM

[복스리뷰]

“성경엔 없어 더 궁금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결국 모든 책의 존재 이유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신학이든, 문학이든, 경제학이든, 철학이든. 모르는 것(?)을 알려 주는 데(!) 책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사는 이유이다.

여기서 하나 묻게 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고, 무엇을 알고 싶은가’이다. 어떤 책은 정말 우리가 몰라서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지만, 다른 어떤 책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잠재의식 속에 모르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당신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일깨워 준 뒤 답을 주기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가령 경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지 모르기에 그것을 알려주지만, 철학서는 우리가 평소엔 궁금해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강제적인 물음표를 던져 준 뒤 느낌표를 찾아간다. 대개 인문학은 후자, 궁금해하지 않지만 궁금하게 만든 다음 답을 알려 주는 장르다.

앞말이 길고 어려웠겠다. 책으로 들어간다. 이 책, 표지가 강렬하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숨기려는 듯

끌어안으며 조조한 눈빛으로 화가(또는 독자)를 응시한다.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표지 그림은 원서와 다른 것이다. 원서에는 평범한 아이(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책을 옮기면서 고심하다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화가 레옹 코니에의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작품을 썼다. 나는 효과적이라고 본다. 주제와 잘 맞으면서 손이 가게 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의 지적·예술적 소양을 보게 한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소설은 남의 이야기다. 그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진 완전한 허구건, 내 이야기 아니기에 사실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은 궁금해하게 하는 힘이 있고, 이 힘의 강도가 소설의 가독성을 좌우한다.

소설 <영 메시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1년 동안 이야기를 한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1년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설은 궁금해하게 하는 힘이 있고, 기어코 마지막까지 읽게 만든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1년은 어떤



영 메시아
앤 라이스
포에마 | 372쪽

의미일까? 이 궁금증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영혼 구원)을 알지는 않았을 거다’를 전제로 두고 있다. 작가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 알았을까?’를 궁금해했고, 이 궁금증을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자료를 가지고 풀어 나갔다. 난 이 부분이 놀라웠다. 작가는 독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 자신의 책을 기다릴지 잘 알고 있는 듯, 첫 부분에서 보여 준 사건부터 끝부분의 마무리까지 물

입감 있게 처리하였다.

이 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예수님이 장남이 아니라는 거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형이 있었다(여기에선 ‘야고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난 처음에 ‘이게 뭐가?’ 했는데, 알아 보니 신학적인 근거가 두 가지 있다고 한다. 당시에는 아무리 장남이 다른 주장을 한다 해도 동생들이 장남을 비판(요 7:3-5)할 수 없었다는 것과, 형제가 있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긴 일(요 19:27)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의 첩이라는 주장이다.

이 책에선 이 가설(假說)을 진실(眞說)로 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잇는 요소로 ‘사건’을 삼는데, 이 사건을 의도치 않게 보여 주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했다. 몇 번의 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이지만, 30세 이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수긍할 수 있게 한다.

한 가지 걸리는 건 한글 제목이

다. 원제는 ‘Christ the Lord(예수 그리스도)’인데, 한글 제목은 <영 메시아(어린 예수님)>이다. 원제도 주제를 제대로 담지 않고 있지만, 한글 제목은 조금 유치하지 않나 싶다. 그래도 이권 굳이 단점을 찾자고 했을 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일 뿐이다.

이 책의 유익 중 가장 큰 건,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성경이 그리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이 빈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기독교 소설과 일반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기독교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신학자나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융통성이다. 소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확실치 않은 부분을 허구로 메우는 것에 대한 아량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함부로 주장해선 안 된다’는 아집이 소설 시장의 성장을 퇴보하게 하며, 나아가 성경에 대한 이해마저 떨어뜨리게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성구 부장(순천하나드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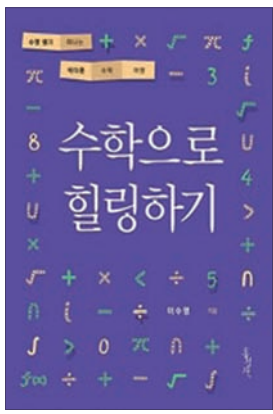
“수학은 훌륭하고 멋진 상담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어떤 상담가보다 수학이 훌륭하고 멋진 상담가라는 것이다.”

수학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수포자(수학 포기자)’들과, 자녀들의 수학 책만 보면 공포감이 드는 부모들까지,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 ‘뜨악’할 것이다. 수학은 많은 이들에게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문’이고, 그저 피하고만 싶은 학문 아닌가. 제목부터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수학으로 힐링하기>의 저자 ‘수영 쌤’은 말한다.

“더하기를 통해 현재에 감사하라는 것을, ‘일차방정식’을 통해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합수’를 통해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모습이 이뤄진다는 것을, 수학은 내게 원리로서, 개념으로서, 기호로서 알려주었다.”

1부 제목은 ‘수학이 널 응원해’



수학으로 힐링하기
이수영
홍성사 | 252쪽

이지만, 소제목은 마치 수학 교과서 같다. 더하기와 빼기 같은 기초적인 수와 연산부터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와 그래프, 도형과 벡터, 집합과 수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

계가 차례로 등장한다. 실제로 해당 ‘단원’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그 설명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하지 않다. 다양한 예시와 이야기들로 시작하고, 풀이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제목처럼 한 장의 사이드 같은 ‘힐링’과 ‘칭량감’을 선사한다. ‘수영 쌤과 떠나는 색다른 수학 여행: 이 땅의 모든 수포자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슬로건처럼 색다른 경험이다.

짧게 이어지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사례를 들며 ‘힐링’에 주력한다. ‘하나님’세상, ‘하나님=예수님’ 같은 기호들이 나오는 ‘수학으로 본 성경’도 재미있다. 책은 몇 달 전 배우 정혜영 씨가 자신의 SNS에 언급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저자는 “수학은 우리 삶의 영긴 것들, 단힌 것들, 막힌 것들을 해결해 주는 열쇠”라며 “수학은 시험과목이자 수능 준비를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힐링의 도구도 되어 주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도록 해 주는 안경과 같다”고 말한다.

“행복한 교실 만드는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개리 채프먼, D.M. 프리드
생명의말씀사 | 224쪽

본서는 한국교회 최고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이다. <5가지 사랑의 언어>에 기초한 교육 과정으로, 수업 교안과 학생용 활동지를 수록했다.

마치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사용 지도서’처럼 의도와 배경을 설명하는 ‘수업을 시작하며’부터 원고형과 요약형 교안, 정리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18년째 학교 상담가로 활동 중인 D. M. 프리드는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 학습은 인간관계 및 학업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며 “5가지 사랑의 언어 교육은 학생과 교육자, 가족이 자신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

그 중심에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무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관계를 향한 인간의 가

장 깊은 내면의 욕구와 만나게 된다”고 소개했다.

프리트 교사가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 학생과 교사가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면 학생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에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형성되는 두 강력한 관계인 인간관계와 학업 관계를 결합하면 최고의 학업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본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제시한 후 각각 5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사랑의 언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순서로 구성돼 있다.

이후에는 부모들과 가정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학생들을 위한 활동지도 제공한다.

사랑의 언어 ‘5가지’는 잘 알려져 있듯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이다.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언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더명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새로운 개념의 향산화 세제

에미나99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 대신 친환경, 무공해, 다용도 “에미나99” 세제를 꼭 사용해 보세요!

사용 효과

- 세탁 시 유연제 필요없고, 정전기 방지되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좋은 세탁물이 됨
-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 하면 피가 더 잘 통하고, 기름기 잘 지워짐
- 청소(화장실 변기, 욕조, 마루, 가구, 가전제품, 식당, 후드, 세차) 시에 화학물질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 공기를 정화시킴
- 애완동물 목욕, 어항 수질 유지와 뿌리면 집안의 모든 냄새를 없앴
- 농작물에 적은량을 뿌려주면 진딧물과 병충해가 없고 수확이 3배 이상이 되며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음(꽃에 뿌리면 빨리 시들지 않음)
- 양치질,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방지, 곰팡이 제거

지매품: 물들, 밥들, 튀김들, 생생팩, 신비의물들, 세수비누, 삼푸, 로션, 크림은모두 향산화 용액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 산화를 막아주는 세계 유일의 특유한 제품입니다.

1 친환경 세제 (우리집 건강 지킴이)
아토피, 피부염 상처, 가려움증 효과

2 지구 정화
이산화 탄소, 다이옥신 제거 방사선 감소 20%

3 경제적 절감 (일반세제의 1/3 사용)
4인 가정 화학세제 년 약 \$200.00 저축함

4 물 절약
평균 1회 OK 사용한 물은 식물 재이용 OK 하수구 정화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Tel:(323)316-6815 / 인터넷 '약손니손' 검색 /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메오 갤러리아)

'Becoming One for the Next Generation' G2G-KODIA Officially Merge, Share Plans to Serve Korean Immigrant Community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wo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working to serve the next generation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have merged together. Pastors from Southern California, New York, and other regions, of both first and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attended the merger ceremony to congratulate G2G (Generation to Generation Christian Education Center) and KODIA (Korean Diaspora Christian Education Institute) on becoming one organization.

G2G was established by Dr. Hak Joon Lee in 2007 in New York, and KODIA, which is currently led by Sung Hwan No, was established in 2009 in Toronto.

However, the two organizations have been collaborating in publishing spiritual resources for Ko-

rean American youth since 2012, making the first-ever publications of the kind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urrently, resources have been published for 10th grade (called 'Living Between') and 11th grade (called 'Living Together'), and the study materials for 12th grade youth are almost completed.

The new organization is now called G2G-KODIA, of which Lee and No will be co-presidents and Rev. Hee Min Park will be the chairman of the board.

The presidents expressed that researching the field, training teachers, innovating curricula, mentoring Korean American seminary students and pastors, hosting seminars for Korean American parents, hosting workshops for pastors, and training youth and young adults, are part of their vision for the new organization.



A few attendees of the recent merger ceremony cut the cake together in celebration. Sung Hwan No (third from the right) and Hak Joon Lee (fourth from the right) will be co-presidents of the newly merged G2G-KODIA.



John Jongdai Park (left), Hyepin Im (center), and David Lin (right) explained the details of the upcoming KCCD Summit.

KCCD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Voices Coming Together Can Make a Difference'

BY RACHAEL LEE

The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AAPI) Christian community will be gathering in Washington, D.C. in June to engage with elected officials regarding the needs of the AAPI community as well as to learn about resources they can receive from the government.

This year makes the ninth time that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has hosted a summit for the AAPI Christian community, addressing the needs of AAPI individuals and training them to understand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on the government level. For the past two years, a portion of the summit included a White House briefing, during which White House staff shared some of the initiativ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attendees had time to ask questions or address specific needs.

Such a summit is significant because it allows the AAPI community more opportunities to "get on the radar" of the mainstream community and particularly to get the

attention of the government, explained Hyepin Im, the president and CEO of KCCD.

"We want them to see us because they forget about us," Im said. "And when they see us, they could include us when they're making those policy decisions or funding decisions."

"Our words have power, but if we do not even raise our voice, others will," she added. "If we don't speak up, our community will be voiceless."

Though the White House briefing is tentative on the schedule for this year's summit, Im says that there will be opportunities for dialogue with elected officials during the summit sessions.

"During the summit, rather than them just talking to us about what they've been doing, we'll have opportunity for more conversation and dialogue," Im explained, adding that that will allow members of the AAPI community to voice their interests and needs.

Speakers who will be featured at this year's summit include Tony Suarez,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Jannah Scott, the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in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Mark Brinkmoeller of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gresswoman Grace Meng, representing the sixth district of New York; Congressman Ed Royce, representing the 39th district of California; and Congressman Mark Takano, representing the 41st district of California; among others.

KCCD has also had a 'Young Ambassadors' program for the summit since 2014, which allowed college students to also participate. This year, the summit will also be open to high school students.

"Our individual voice might seem small, but small voices coming together can make a difference and be an influence on our community," said Rev. John Jongdai Park, a co-chairman of the board of KCCD.

This year's summit will take place from June 6 to 8 at Gallaudet University. For more information, visit aapifaithalliance.org.

Resolving Differences in Culture Through Communication

BY RACHAEL LEE

"Do you understand?"

"Jogeuim," Tim Schlensker would respond in Korean with a smile as his abonim — or father-in-law — would turn and ask him in broken English in the middle of conversations with his other elderly Korean friends.

Abonim would then turn back to his friends and say something about Schlensker being a "baboo" — an affectionate Korean term to describe someone as 'stupid' — to which Schlensker would frown and dart back jokingly with a stern tone, "Abonim, I heard that!"

Today, 13 years into his marriage with his wife Michelle, Schlensker and his in-laws are friendly and even joke around about Schlensker's non-Korean ethnicity. Schlensker and his family are also active members of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which consists mostly of Korean American congregants. Sometimes, Schlensker says, church members would forget that he's not Korean.

Schlensker comes from a family line that has been German Lutheran for generations since the 1700s, and he hadn't planned to be so involved in the Korean community, nor to marry a Korean woman. His relationship with Michelle served as the launching pad to his journey of learning and navigating through the differences in culture in the Korean community.

And for much of that journey, clear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 in deepening relationships and coming to better understand

one another, Schlensker said.

His first challenge came in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his in-laws. At first, his to-be father-in-law was completely shut off.

"Her dad had no interest in meeting me or investing any time in me," Schlensker recalled. "On some level I think he was hoping I would disappear and go away because deep down, he really wanted Michelle to marry a Korean guy. Because that's his culture, that's what he's comfortable with."

Schlensker rolled up his sleeves and did his homework to win his in-laws' hearts. He enrolled in Korean classes to learn conversational Korean, and when he proposed to Michelle, he wrote a letter to abonim.

"I had written a letter to abonim because I couldn't explain myself fully in Korean," he said, "and the letter would give him more opportunity to understand [me] in the written word."

His efforts, particularly the letter, seemed to have gotten through to his father-in-law, but the reaction he received from his mother-in-law was unexpected.

"After that, all of a sudden abonim's demeanor totally changed. He said, 'Yeah, you marry.' He turned 180 degrees -- as did his wife."

"Omonim, who had been very friendly before, suddenly said, 'Oh no, you can't marry.' And I think her concern suddenly was, 'Is he going to be able to be the traditional son-in-law and support us like we would expect?' Because the American culture can some-

times be, 'Hey, old folks, take care of yourselves.' But Korean culture is 'Come, we have an extra room. Live with us.' This is assumed," said Schlensker.

"But I have no problem assuming that that's going to be the case," he added.

In Michelle's case, her own experiences of having immigrated to the U.S. caused her to worry about what the future of her children would look like if she marries a non-Korean man.

"Michelle immigrated to America when she was nine years old," Schlensker explained. "She experienced the segregation and prejudice in a real way, like I would never experience and I never could."

"Her worry was, where would our children be? How would they feel growing up between cultures? Maybe fitting into both cultures, but maybe not. Maybe being ridiculed by both," he recalled.

These were concerns that Schlensker never could have imagined or understood had she not shared openly about them.

But Schlensker not only experienced these differences in perspective and culture within his new family, but also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Even though the churches he had served at were English-speaking congregations, some differences in perspective and expectations still existed, he explained.

Schlensker had worked at various churches as a children's ministry pastor — both Korean and non-Korean. And one thing that stood



Tim Schlensker is a counselor and therapist who practices in Brea, CA. Schlensker is well-acquainted with the challenges of overcoming differences in culture through his own experiences in marriage.

out to him once he started serving at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is that church leaders seemed to expect more of a visionary type in him than he expected.

"I try to be the cooperative and obedient person for the most part, rather than the visionary in the church," Schlensker explained, "but that's the way a lot of people saw the 'jundosa' position in the children's ministry. And here I was just waiting for the lead pastor to come and tell me, 'This is how we run our ministry. This is what I want you to do.'"

"There was a miscommunication on that part," he added. "A misinterpretation or bad assumption of roles."

Schlensker, who now no longer works as a pastor but as a counselor, explained that having had the experiences he had — learning

a new culture, and navigating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s in the family and in the church — drives his desire to help people in their own relationships and challenges.

"I want to be available and encouraging to staff members particularly when they're experiencing the struggles and dysfunction that I went through," he explained. "I want to help them have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and to be effective in ministry."

That open, honest communication is key to resolving many issues across the board, Schlensker said. As he hosts workshops on parenting, marriage, and other relational issues at churches, he says emphasizes, "How to deal with all of those issues is the same — it's communication."

"Tactful, genuine, well-timed communication."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Appoints First Asian American President

BY RACHAEL LEE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USA, a college campus ministry with chapters in over 640 campuses, has announced on Monday that Tom Lin will become its next president, making him the first Asian American to serve in the position. His term will begin on August 10.

"We've got so many men and women, ethnic minorities, who serve in leadership at InterVarsity," Lin told Christianity Today. "We've worked at it, and we've continued to learn and grow. We never say we've arrived, but this is a significant moment for InterVarsity. It is significant ... for any large, North American evangelical organization to have a non-white president."

Lin has been serving in several capacities in the ministry for many years since he began his career in 1994, beginning with planting chapters in universities, going overseas to start college ministries in Mongolia, and serving as the

vice president and director for missions since 2011. Lin has also directed IVF's major triennial conference called 'Urbana' for two years in 2012 and 2015.

In a statement, InterVarsity said that Lin has "every qualification InterVarsity could want in a president."

"His resume—which includes degrees from Harvard and Fuller Seminary, as well as roles as a campus staff member, a missionary, a pastor, and a vice president in InterVarsity—is impeccable. He knows how to strategize, lead, catalyze, and plant. His yes is yes, and his no is no."

"But what perhaps makes him most qualified to serve as our next president," the statement continues, "is his history of continually saying yes to God's call on his life, even when it meant saying no to his personal dreams and plans."

As president, Lin will be leading over 40,000 college students, 38 percent of which identify as an ethnic minority.

InterVarsity features separate chapters of ethnicity-specific ministries,



(Photo: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Tom Lin, the new president of IVF.

such as Black Campus Ministries, Asian American Ministries, Latino Fellowship, and Native Ministry. Lin planted Asian American ministry chapters in his alma mater Harvard University as well as in Boston University.

Supreme Court Makes No Decision on 'Little Sisters of the Poor' Case

Sends Case Back to Lower Courts for Reconsideration

BY CHRISTINE KIM

The Supreme Court sent back to the federal appeals courts the Little Sisters of the Poor case regarding to what extent religiously affiliated employers must be involved in providing contraceptive coverage.

"The Court expresses no view on the merits of the cases," the court said in an opinion.

The government has tried to accommodate objections from religious employers in having to pay for or being complicit in allowing birth control in their employees' health plans while making sure that female employees receive contraceptive coverage.

While houses of worship are exempt from the mandate, religious nonprofits must notify the government of their religious objections, prompting a third-party administrator to provide coverage.

However, religious employers claim that the act of notifying the government of their objections equates to being complicit in providing contraceptive coverage.

In March, the court requested each



(Photo: Roman Boed/CC)

side to provide supplemental briefs that draft possible ways in which the two sides can compromise. The court has suggested that "such an option is feasible."

The Little Sisters of the Poor and other religious organizations will not be fined while the cases are under review.

Sending the case back to the appeals court to make new decisions "afford[s] an opportunity' for the parties and Court of Appeals to reconsider the parties' arguments in light of petitioners' new articulation of their religious objection and the Government's clarification about what the existing regulations accomplish."

Obama Administration Directs Schools to Allow Students to Use Bath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BY RACHAEL LEE

The Obama administration directed schools across the country on Friday to allow students to use facilities such as bathrooms and locker rooms according to the gender they identify with, or risk losing federal funding.

The directive was sent via a letter signed by Catherine Lhamon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Vanita Gupta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letter reads, "A school's failure to treat students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may create or contribute to a hostile environment in violation of Title IX," referring to a portion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Though the text of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states that it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in any federally funded education program or activity," the Education and Justice Departments stated in the recent letter that they would "treat a student's gender identity as the student's sex for purposes of Title IX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This means that a school must not treat a transgender student differently from the way it treats other students of the same gender identity," the letter continues. "The Departments'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courts' and other agencies' interpretations of Federal laws prohibiting sex discrimination."

The letter directs schools not only to allow students access to bathrooms and locker rooms according to the gender they identify with, but also men-

tions other aspects of school that could be entangled with gender issues, such as school dances, yearbook photos, and graduation ceremonies.

"A school may not discipline students or exclude them from participating in activities for preparing or behaving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or that doesn't conform to stereotypical notions of masculinity or femininity (e.g. yearbook photographs, at school dances, or at graduation ceremonies)," it says.

Along with the letter, the administration sent a packet of examples and Q&As regarding how to accommodate transgender students, and what some schools have already implemented to do so.

For example, the packet included an example of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s policy that when confirming a student's gender identity, "[t]here is no medical or mental health diagnosis or treatment threshold that students must meet in order to have their gender identity recognized and respected."

The packet explains that "schools generally rely on students' (or in the case of younger students, their parents' or guardians') expression of their gender identity."

The federal directive has been applauded by some as an inclusive and bold step from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commended the government for "taking a stand" for transgender students,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This is the boldest stance the federal government could take to support

transgender students," said Asaf Orr of the NCLR Transgender Youth Project.

Others have criticized the Obama administration for breaching its boundaries and not allow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regarding the issue.

"Is there any issue the Obama Administration believes can be left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 tweeted Nebraska Senator Ben Sasse.

Religious leaders have also expressed concern. Russell Moore, the president of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wrote in an article that news of the directive took him by surprise.

"If anyone had suggested in 2009 that the new president's administration would seek to target children's bathrooms for the sake of transgender ideology, the White House would have ridiculed it as a crazy conspiracy theory," Moore wrote.

"There are good reasons to put boys and girls in different bathrooms and locker rooms and sometimes sports teams, reasons that don't impugn the dignity of people but uphold it," he continued. "Every human being knows that there are important, and necessary,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Without such recognition, women are harmed and men are coarsened."

This is the first major action in terms of transgender students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taken since North Carolina's controversial bathroom law has been in the midst of a legal battle between the state and the U.S. Justice Department.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fc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i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정의 달 SALE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SE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Lease It For **\$399** +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All in Stock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10,0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GENESIS Signature Package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Lease It For **\$239** +Tax

All In Stock With
MSRP \$43,785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3,500 Lease Cash,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